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7

오보에(Oboe)

글. 김성현 ubc 울산방송 미디어기술국 부장

연재 목차

- 1편. 바이올린
- 2편. 비올라
- 3편. 첼로
- 4편. 더블 베이스
- 5편. 하프
- 6편. 플루트
- 7편. 오보에**
- 8편. 클라리넷
- 9편. 바순
- 10편. 색소폰
- 11편. 리코더
- 12편. 트럼펫

이 글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를 매회 하나씩 소개한다. 악기 소개는 개요, 구조, 종류, 뒷이야기 등의 열개로 기술되며 방송 현업 하시는 분에게 악기에 대한 이해와 교양으로써 상식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오보에Oboe를 들어가며

영화음악계의 거대한 별인 엔니오 모리코네Ennio Morricone가 2020년 7월에 타계하였다. 그는 ‘시네마 천국Cinema Paradiso’, ‘황야의 무법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어메리카Once upon A time in america’ 등 많은 영화에서 서정적이고 주옥같은 멜로디로 대표적인 영상(그림)매체인 영화에서 음악(소리)이 주는 힘과 감동을 한 차원 끌어 올린 위대한 작곡가였다. 특히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주제곡은 잔인한 서부영화(스파게티 웨스턴)에 걸맞지 않은 너무나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의 음악은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마력을 지니고 있는데 영화 ‘미션Mission’에서 원주민들과 처음 맞닥트리고 생사가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인공 가브리엘 신부는 인류의 보편적 언어인 음악으로 즉, 오보에를 연주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그때 연주한 곡이 ‘가브리엘의 오보에Gabriel's Oboe’이다. 음악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멋진 장면임이 틀림없다.

오보에의 개요

오보에는 프랑스어로 ‘음이 높은 나무피리’라는 뜻의 오브와Hautbois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아프리카 흑단나무 그라나딜라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흑단나무는 이름처럼 색깔이 검은색이며 밀도가 높고 경도가 세서 나무 중에 가장 단단해 물에 던지면 뜨지 않고 가라앉는다. 값비싼 소재의 목재로써 고급 가구나 악기의 재료로 사용되며 영어로는 에보니Ebony라고 부른다. 오보에는 원통형의 플루트와는 달리 밑으로 갈수록 굽어지는 원추형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상단



영화 미션 / 유튜브

에 더블리드를 장착하여 입으로 불면서 연주한다.

음색은 나무 재질의 특성과 더블리드(Double Reed)로 인해 부드러우면서 고고한 느낌을 준다. 더블리드의 특색인 웅웅거리는 듯 코맹맹이 소리 느낌이 들며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선율에서 주로 연주된다. 플루트는 낮은음에서 풍부하고 윤택한 음을 내며 높은음에서는 다소 불안하다. 반면 오보에는 낮은음에서 얇으면서 비어 있는 소리이지만 높은음에서는 강력한 고음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서양에서는 오보에의 음색을 매우 동양적인 애수를 띠었다고 하여 음악가들을 매료시켰는데 비발디, 바흐, 헨델은 오보에를 그들의 작품에 자주 사용하였다. 오보에는 오케스트라에서 전체 합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뚜렷하고 독특하며 높은 음색을 자랑하고, 악보에 기보된 음이 그대로 소리가 나는 실용 악기이다.

더블리드는 얇게 갈아낸 리드를 접어서 끝부분을 잘라내는데 그 간격이 아주 미세하며 정교하다. 그 사이로 호흡을 불어 넣으면 얇은 두 장의 리드가 떨리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오보에, 잉글리쉬 호른, 바순 등이 더블리드를 사용하는 악기이다. 재료는 갈대의 일종인 케인(Cane)이며 더블리드는 제작 및 관리가 무척 까다롭고 어려운데 연주자가 이를 직접 만지다 보니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 특히 연주자들은 기성품 리드를 구입하지 않고 직접 깎고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자신만의 노하우 내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 8화를 보게 되면 여주인공 노다메를 짝사랑하는 스마트하고 냉철한 성격의 오보에 연주자가 오디션을 앞두고 노다메에 대한 생각에 빠져버려 실수로 리드를 계속 물에 담귀 놓고 만다. 연주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리드가 너무 젖어버려서 그 기능을 못 하게 되는 바람에 유력한 우승후보자였던 그는 낙선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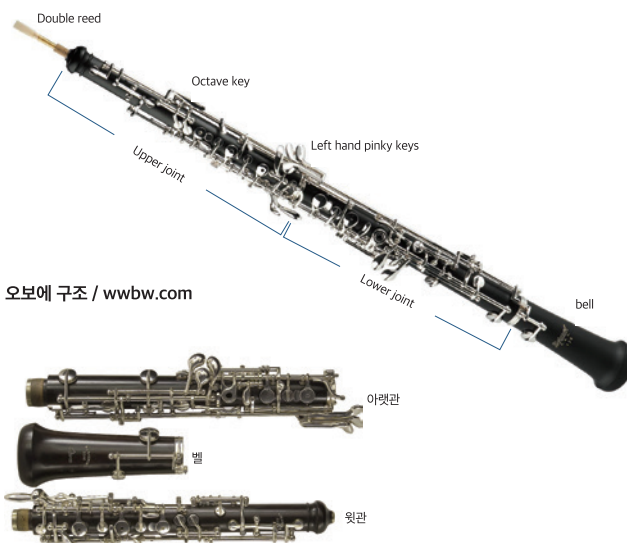
리드는 너무 말라서든 혹은 젖어서든 안 돼서 적당한 습기를 머금고 있어야 좋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 전에 작은 물통에 담가 두거나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보게 된다. 이처럼 리드가 중요해서인지 오보에 교육과정에는 리드를 깎고 제작하는 기술에 대하여 배우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리드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 넣으면

더블리드가 진동을 하게 되는데 너무 얇거나 두껍지 않아야 한다. 바람의 조절이 올바르지 않거나 두께가 적절치 않을 경우 찢어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아예 엉뚱한 소리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오보에 연주자들은 최상의 소리를 얻기 위하여 항상 더블리드 제작과 리드를 잘 떨리게 하는 기술에 신경을 써야 하며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고 한다. 그만큼 관리와 연주가 힘들어 오케스트라 악기 중에서 어려운 악기에 속한다고 한다.

오보에의 기원은 중세시대 숄(Shawm)으로 볼 수 있는데 현대 오보에의 형태는 19세기 프랑스의 악기 제작자 기욤 트리에베르가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서 항상 일정한 음을 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사용되는 오보에는 대부분 프랑스에서 개량되어 알려진 것이며 악기의 진화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오보에는 클라리넷이나 플루트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연주용으로 기천만 원 이상이고 입문자용도 기백만 원 수준) 악기를 구입하여 배우기가 쉽지 않다. 취미로 오보에를 연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학을 비교적 쉽게 진학하기 위해 경쟁이 적은 오보에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고가의 악기라서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사실 오보에를 전공으로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귀족의 악기라는 별명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오보에의 구조

오보에는 윗관, 아랫관, 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오보에 구조 / wwbw.com

오보에 분해도 / wwbw.com

오보에의 종류

오보에는 음역과 크기별로 오보에, 오보에 다모레, 코르 앙글레, 베이스 오보에, 헤켈폰 등이 있다.

오보에 다모레 Oboe d'amore

오보에는 리드를 바로 장착해서 곧은 모양이지만 오보에 다모레는 약간 구부러져 있는 크룩(Crook, 보칼 Bocal이라고도 한다)에 장착한다. 오보에보다 낮은 음역으로 사랑스러운 느낌의 음색이라 사랑을 뜻하는 단어 '아모레'를 붙여서 '오보에 다모레(사랑의 오보에)'라고 부른다.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의 볼레로(Bolero)에서 이 악기의 솔로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오보에 다모레 / reverb.com

코르 앙글레 Cor anglais (잉글리쉬 호른 English horn)

오보에 다모레보다 크고 깊으면서 낮은 소리를 내는 악기로 잉글리쉬 호른이라고도 부르는데 프렌치 호른과는 생김새나 음색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중고시절에 음악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헛갈리는 문제로 잉글리쉬 호른과 프렌치 호른의 그림을 보고 악기 이름을 쓰는 것이 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악기모양과 이름을 매칭시켜보자! 코르 앙글레는 오케스트라에서 슬프고 쓸쓸한 선율을 연주할 때 자주 사용되며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2악장에서는 고향에 대한 서정적 향수를 표현하고 있다. 오보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연주할 때 오보에만큼 높이 들어 올려 연주할 수



코르 앙글레 / webstockreview.net

가 없어서 리드는 악기에 직접 끼우는 것이 아니라 약간 구부러져 있는 크룩에 장착한다. 오보에보다 훨씬 연주하기가 까다로워서, 연주자들은 독주할 때 더욱 예민해진다.

베이스 오보에 Bass oboe

S자 모양으로 꺾인 크룩에 리드를 연결하여 연주하는데 코르 앙글레보다 사이즈가 크고 더 낮은 음을 내는 악기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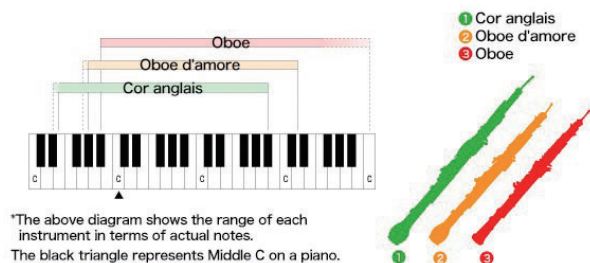
베이스 오보에 / musicalchairs.info

헤켈폰 Heckelphone

자주 사용되지 않는 베이스 오보에의 일종으로 베이스 오보에보다 더 크고 낮은음을 낸다. 기억자 모양의 크룩을 장착한다.



헤켈폰 / wikiwand.com



오보에 패밀리 음역대 / yamaha.com

오보에에 관련한 뒷이야기

오보에의 기원

더블리드를 가진 관악기는 고대 그리스부터 존재했으나 12세기경에 오보에의 조상이 유럽에서 사용되었다. 숄(Shawm)이라 불리는 악기로 황량하고 적막한 소리를 낸다.



숄 / britishmuseum.org

남자의 자격

‘넬라 판타지아’라는 유명한 곡이 있다. 이 노래는 유명한 1986년 영화 ‘미션’의 주제가로서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했는데 원래는 오보에 연주곡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로 인해 이태리어로 가사를 붙여 ‘넬라 판타지아’라는 성악곡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곡은 사라 브라이트만이 부르는 버전이 유명했는데, 원래는 ‘Gabriel’s oboe’이며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부를 때에는 ‘Nella Fantasia’라는 곡이 된다. 한때 모 방송사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에서 합창곡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남자의 자격 / 방송 스틸컷

순환호흡 Circular Breathing

오보에를 연주하기 위해 들이쉬는 공기의 양은 많지만 연주할 때 사용하는 공기의 양은 아주 적다. 그래서 오보에 연주자들은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공기를 소비하기 위해 이때금 숨을 들이쉬지 않은 상태로 내쉬기만 한다. 또한 우리 공예가가 뜨겁게 달궈진 유리 덩어리를 부는 것처럼 순환호흡을 하는데 이것은 코로 숨을 마셔서 입안에 비축함과 동시에 입으로는 숨을 내쉬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

람이 보면 숨을 쉬지 않고 계속 호흡만 불어내는 것처럼 보여서 신기하게 생각할 것이다. 사실은 숨을 쉬면서 연주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보이는 독특한 스킬이다. 팝, 재즈 뮤직 분야에서 색소포니스트 케니 지(Kenny G)가 콘서트에서 하나의 음을 몇 분간을 끊어짐 없이 연주하는 모습은 유명하다. 이 호흡을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한다. 역시 세상에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나 보다. 이 순환호흡은 플루트, 색소폰, 클라리넷, 트럼펫, 트럼본 같은 목관악기나 금관악기 연주자들은 필히 연습해야 할 호흡법으로 알려져 있다.

미니 오보에

상기에 기술한 것처럼 고가의 가격에 연주하기가 어려워 배우기도 까다롭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싼 입문용 미니 오보에 그랄라 세카(Gralla Seca)가 있다. 오보에의 전신으로 더블 리드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린이, 초보자, 취미 등의 용도로 알맞은 악기이다.



그랄라 세카 / mimo-international.com

오케스트라 연주 전 조율

우리가 교향곡 음악회를 가게 되면 오케스트라가 공연 전에 악장의 지시로, 오보에 연주자가 A(라=440Hz)음을 내게 되고 그 음에 맞추어 모든 악기를 조율한다. 오보에는 위낙 음색이 독특하고 선명하여 다른 악기와 합주를 할 때도 구별이 가능해서 여러 악기 중에 도드라지게 들린다.



오보에 순환호흡 / 유튜브



오케스트라 공연 전 튜닝 / 유튜브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앞서 튠닝할 때의 기준이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음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안정된 음정을 내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다. 짧은 튠닝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지휘자가 등장하며 음악회는 시작된다.

윤이상의 피리와 오보에

윤이상은 동양의 천지인 사상과 통일된 우주관, 그리고 인간을 우주의 축소판인 소우주로 보는 동양철학 사상인 불교와 도 사상에 입각하여 대부분의 곡을 작곡하였다. 그는 한국에서 작곡가로서의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음악적 열정만으로 40세의 나이에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을 떠난다. 늦은 나이의 유학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적인 음악가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지만 그 당시 한국의 정치·이념적 환경 때문에 그렇게 바라던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하고 머나먼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우리 국악에서 농현(서양악기는 하나의 음만을 소리 낼 수 있지만 가야금 같은 악기는 현을 위아래로 움직임으로써 한 음에서 높낮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뿐 아니라 음을 갖고 놓고 희롱(유희)하는 국악만의 특징)을 서양악기로서는 표현하기에 아주 힘이 든다. 그래서 농현을 표현하기 위한 많

은 음표들이 특징인데 그의 출현으로 인해서 서양의 악기가 보다 넓은 연주 폭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서양인들은 인정한다. 수많은 음표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가는 그의 음악을 서양인들은 ‘동양적이다’ 혹은 ‘명상의 세계이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윤이상의 오보에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하인츠 홀리거와의 음악적 우정은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의 다양한 레퍼토리와 오보에의 열정을 높이 사서 그에게 오보에 연주곡 ‘피리’를 헌정하였다. 국악에서 피리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큰 음량과 희로애락을 표현할 수 있는 음색의 다재다능한 악기로서 한국의 정서가 뿌리 깊은 악기이다. 더블 리드를 통해서 발성하는 원리가 오보에와 피리가 닮아 있어서 오보에는 피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서양악기로서 점점 찾은 것이다.



경남 통영을 여행하면 꼭 가야 할 곳으로 윤이상 기념관이 있는데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과 그의 음악·사상을 테마로 한 곳으로 윤이상의 생가 옆에 조성되었다. 윤이상 선생의 음악세계를 느낄 수 있는 전시관과 소공연장이 있으며, 전시관에는 선생이 생전 독일 베를린에서



윤이상 / yunfoundation.org



경남 통영 소재 윤이상 기념관 / utour.go.kr

거주하며 남긴 유품 수백 점이 있고 독일 정부로 받은 훈장과 괴테 메달을 비롯한 사무집기, 생전에 연주하던 바이올린, 항상 품고 다녔던 소형태극기와 사진 500여 점이 전시되어있다. 살아생전에 이미 세계 5대 작곡가로 손꼽혔고 150여 곡의 작품을 남겼으며 서양음악의 모든 전통을 흡수한 바탕 위에 동양의 철학적 사상과 국악의 음향을 결합해 인류 음악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다. 슬픔과 억압이 있는 곳에 음악으로 말하고 싶어 했던 윤이상 선생의 생전 모습과 친필 글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한번쯤 둘러보시길 추천한다.

오보에와 발성 원리가 같은 우리 악기 ‘피리’

필자가 국민학교(초등학교의 이전 명칭)를 다닐 당시에는 ‘피리’라는 단어는 입으로 부는 악기의 대명사였다. 특히 리코더를 피리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실제 옛날 우리네 선조들은 입으로 불어 소리 나는 것을 피리라고 통칭하였다. 서양의 악기 중 더블리드를 장착한 오보에는 우리 국악기 중에서 피리와 발성원리가 같다. 피리는 여러 종류의 대나무에 ‘서’라고 하는 더블리드를 장착하여 입으로 부는 악기로서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굉장히 크면서 기쁨과 슬픔 등 다양한 음색 표현할 수 있다.

종류는 크기별로 세피리, 향피리, 당피리로 나눌 수 있으며 세피리와 향피리는 해장죽으로 제작하고 당피리는 해장죽보다 더 굵은 황죽이나 오죽으로 제작한다. 세피리는 줄풍류, 가곡반주에 사용되고 향피리는 민속음악 합주, 무속음악, 무용반주 등에 사용된다. 음량이 가장 큰 당피리는 종묘 제례악 등에 연주되었다.



위에서부터 세피리, 향피리, 당피리 / 국립국악원

더블리드를 장착한 우리 국악기가 하나 더 있다. 농악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태평소가 바로 그것이다. 태평소는 엄청나게 큰 음량의 악기라 금관악기로 오해할 수 있는데 목관악기이다.



태평소 / 국립국악원

악학궤범의 첫 장을 보면 “음악은 하늘에서 나와 사람에게 깃든 것이며, 빈 곳에서 생겨나 자연에서 완성된다. 이로써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피를 돌게 하고 맥박을 뛰게 하며 정신을 깨어있게 한다.”라고 쓰여 있다.

자연의 재료를 사용해 만드는 악기야말로 음악을

담는 온전한 그릇이 되며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리 국악기의 힘이 아닐까!

오보에 리드 깎기

앞서 오보에 주자의 리드에 대한 세심함과 예민함에 대해 표현하였지만 직접 깎고 다듬는 과정 역시 악기 연주하는 과정 못지않게 주의를 기울인다. 리드 제작은 전용 칼로 리드를 직접 깎기도 하고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리드를 손으로 깎는 방식과 기계로 깎는 방식 / 유튜브

오보에의 파가니니, 안토니오 파스쿨리 Antonio Pasculli

파스쿨리는 오보에의 현란한 기교와 고난도의 연주를 요한다는 점에서 ‘오보에의 파가니니’로 불린다. 그의 오페라 주제의 환상곡과 변주곡은 연주자에게는 항상 경외와 도전의 대상이 된다. 마치 완급을 조절하듯이 현란함 사이사이에

간직하고 있는 서정적 에피소드 역시 뛰어난 서정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첨부 영상은 파스쿨리의 오보에를 위한 도니체티 오페라 ‘폴리우토-Poliuto’에 의한 판타지를 이 유진 오보이스트가 연주한다. 오페라 ‘폴리우토’는 사랑의 힘으로 신성을 깨닫게 되고 죽음을 불사하는 굳은 신앙심을 보여주는 폴리우토와 파올리나의 순교자적인 모습을 그린 오페라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비극이다.



오보이스트 이유진 / 유튜브

오보에 마이킹



원거리 마이킹 / 유튜브

스튜디오에서의 원거리 마이킹은 고감도 콘덴서를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PA 스피커가 있는 라이브 현장

에서 오보에는 일반적으로 악기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3/4 지점에 좋은 소리가 나는데 이 지점에 다이내믹 혹은 콘덴서로 마이킹한다. 오보에는 이 지점과 벨에서 소리가 나며, 두 곳의 사운드가 다르다. 벨에서는 스트레이트 한 사운드가 발생하는데 두 개의 구스넥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두 지점의 음원을 믹싱하여 보다 원음에 가까운 마이킹을 할 수 있는 듀얼 마이크도 있다.



듀얼 마이킹 / appliedmicrophone.com

오보에 음원들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 Ennio Morricone



The Mission - 'Gabriel's Oboe' scene Ennio Morricone



Oboe



Oboe d'amore solo Ravel Bolero



English Horn solo by Jiwon Park, Dvorak's Sym. No.9



Bass Oboe Sonata



Heckelphone introduction with Steve Vacchi



Shawm



Nella Fantasia LIVE Sarah Brightman Ennio Morricone



Circular Breathing on the Oboe



Gralla Seca



Orchestra Tuning



Isang Yun : Piri



피리와 태평소



REED MAKING - Step by Step



A.Pasculli - Fantasia sull'opera Poliuto di Donizetti



Basic Recording Techniques: Woodwinds (오보에)



클라리넷(오보에 동일) 듀얼 마이킹

이것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목관악기군에서 두 번째 주자 오보에를 마치게 되었다. 다음에는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표현력이 다재다능한 악기 클라리넷이 연재된다. 🎷